

미국 은행에서

오늘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은행을 갔습니다. 전화로 하면 도무지 통하지를 앓으니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부딪히면서 하면 그래도 전화로 하는 것 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손에 땀나고,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은 매한가지 이지만 얼굴을 맞대고 하면 그래도 좀 낫습니다. 전화로 한번 했는데, 뜻한 대로 되지를 앓아서 얼마나 답답하고 열났는지 모릅니다.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하자마자, 손에 땀이 나고, 얼굴이 괜실히 화끈거리고, 가슴이 쿵쿵 뛰고, 오금이 저러오고, 귀가 멍멍해지고, 이걸 뭐 사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속으로는 아무도 받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헬로오" 하고 혀를 굴렸습니다. 그 말은 알아 들었는지 다시, "예스, 디스 이즈 ?*&^%. +_*&%\$#@&:>\$#@<" 아 아, 이제 머리가 어지러워 지기 시작 합니다. 앞이 캄캄해 지면서, 가슴 답답 손발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냥, "어-어- 마이 내임 이즈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소리 소리,"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온몸에 열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은행으로 가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은행 안에서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다시 오금이 서서히 저러 오는 듯 괜히 마음이 불안해 지기 시작 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흔들기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서 귀가 멍멍 해지기 시작 합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속으로 계속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헬로 하고 나서, 뭐라고 하나...?! 아브갓더 프라브럼. 휴— 아니, 프라브럼이 아닌데.. 아 이거 난감 하고, 골 땡기네. 뭐라고 해야 되지?. 하면서 긴장 하다 못해 바싹 졸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앞에서 기다리던 사람이 은행원에게로 갔습니다. 이제 내 앞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차례입니다. 갑자기 뜨거운 회리 바람이 휩 지나 가는 것

같습니다. 더 불안 해지고, 더 초조해 집니다. 그냥 돌아서서 은행을 나가고 싶습니다. 돌아서서 가는 사람을 부르지는 않겠죠? 근데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한 은행원이 “넥스트 플리즈” 하고 살짝 웃으면서 저를 봅니다. 말은 알아 듣지 못했지만, 무슨 뜻으로 나를 보고 상냥히 웃는지는 알았습니다. 눈치는 빠르니까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다소곳이 깔려 있던 카페트가 갑자기 파도처럼 울렁거리기 시작 합니다. 한쪽 발이 헛디딘 것처럼 휘청 하더니 몸이 앞으로 기우뚱 해서, 중심을 잡으려고 외쪽 팔을 공중으로 날리며 “어어어” 하고 캄캄한 은행에서 허우적 합니다. 대낮에다 전기불도 있는 데로 다 켜져 있는데 너무나 캄캄 합니다. 왼손에 쥐고 있던 지갑이 공중에서 크게 유유히 회전을 하면서 떨어 집니다. 순간 아차 하면서 다시 은행이 대낮처럼 밝아 졌습니다. 이제는 열풍 중에서도 아주 열이 높은 열풍이 불어 닥칩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온몸이 열풍으로 달아 오르기 시작 합니다. 벌써 콧잔등과 이마에서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더 더욱 열이 나고, 등에서도 땀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찾으려고 바닥을 살핍니다. 보이는 것은 요란한 꽃무늬가 있는 카페트이고 지갑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검정구두가 한 켤레 나란히 보입니다. 구두 코가 반짝반짝 하니 은행 천장이 비취 보입니다.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 앉습니다. 바지가랭이로 봐서는 유니폼인 것 같습니다. 은행에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래. 맞아. 이제 나는 죽었다. 은행 경찰 유니폼 입니다. 아니, 갑자기 경찰은 어디서, 왜 나타났을까요? 안 그래도 바닥이 울렁 울렁이고, 가물 가물 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일까요? 아닌 밤중에 홍두께도 아니고, 머리가 한번 피-잉 돕니다. 캄캄하던 눈앞이 더욱 캄캄해 집니다. 핑 도는 머리를 추스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은 땀이 주르륵 흘러 내리고, 오금이 저립니다. 키가 큰, 아주 큰 경찰이 내 앞에

김치가 치즈를 만날 때™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다. “*&^%\$#@!+_)(*&#\$%^#@”><” 저린 오금이 이제는 아주 푹 녹아 내립니다. 들리는 것은 소리이고, 귀는 멍멍하고, 눈에서도 열이 나고, 등에서는 화차 열이 납니다. 얼굴은 타는 마른 장작처럼 뜨겁게 활활 거립니다. 정말 죽었구나. 입은 벌써부터 봉해졌습니다. 그냥 열이 나는 눈으로 경찰을 멀거니 쳐다 봅니다. 근데 경찰이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는 다정하게 나를 쳐다 보면서 손을 내밀습니다. 순간 “이제 진짜구나. 나는 갔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떨구면서 “내가 왜?” 하고 생각을 하는데, 내민 경찰 손에 내 지갑이 보입니다. 순간 눈에 있던 열이 뚝 떨어 졌습니다. 지갑을 받았습니. 그리고는 “탱큐, 탱큐. 소리 소리.” 했습니다. 소리는 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또 나를 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 *&^%\$+ >?#@.” 아, 얼마나 압담한 순간인가? 이 순간을, 이 마음을 누가 알랴? 눈치로 봐서는 괜찮냐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옆으로 비켜서는가 싶더니, 한 손을 쪽 뺏어면서 은행 직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눈치코치로 읽어,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나를 불러서 경찰이 나를 부른 직원에게 가라고 친절하게 손으로 안내를 하는 것 입니다. 그래서 다시, “탱큐, 탱큐” 하면서 경찰에게 목례를 했습니다. 경찰이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손짓을 한번 더 합니다. 빨리 나를 부른 은행 직원에게 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경찰에게 목례를 하면서 은행 직원을 향해 걸어 갑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담담 합니다. 왜 일까? 갑자기 이상하네...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미 구워 질대로 다 구워져서 더 이상 구워질게 없어서 인 것 같습니다. 머리 끝부터 발가락까지 다 구워 졌으니까요. 이제는 타겠쥌.

나를 기다리는 은행 직원의 창구 쪽을 향해서 걸어 가는데, 난데없이 바닥이 울렁이면서 파도를 칩니다. 등에서 나는 화차 열을 기어이 부정하면서, 은행직원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파도 치듯

김치가 치즈를 만날 때™

울렁이면서 걸어 갔습니다. 직원에게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모질고 멀기만 할까요! 한 걸음 내디딜 때 마다 더 가까워 지지는 않을 망정, 울렁 넘실하는 파도에 밀려 자꾸만 멀어 집니다. 울렁이는 파도는 더 험해 지고 있고, 등에서 나는 화차 열이 다시 얼굴로 퍼져 옵니다. 얼굴에서 나는 열로 인해 눈가에 물이 고이기 시작 합니다. 이마에서는 타는 열에 밀린 듯한 땀이 흘러 내립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눈에 고이는 물을 훔치고, 이마에서 흘러 내리는 땀도 훔쳐 냅니다. 멀정한 대낮에 이게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은행을 오지 말아야 했을 것을. 사서 고생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건가? 바닥 카페트 파도는 생전 처음 입니다.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파도에 일렁이는 배를 타면 뱃멀미를 한다는데, 이걸 뱃멀미도 아니고, 마땅한 이유도 없는 울렁거림 입니다. 영어 멀미라고 해야 하나요? 참, 별것도 다 있습니다. 겨우 겨우 직원이 있는 창구까지 마침내 다 왔습니다. 영어 멀미로 머리가 핑 돌아 갑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 쉬면서, "아이구, 휴우, 십년감수 했네." 하고 혼자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은행 직원이 들었나 봅니다. " *&^% @#%\$>?)(*4\$." 라고 나를 뻘히 쳐다 보며, 상냥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곳에서 얼마 정도 살아, 눈치코치가 늘어서, 지금 이 직원이 하는 말을 이해는 못 해도, 이 말이 서술문인지 의문문인지는 억양과 어투, 그리고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와 행동을 보고 알 수는 있습니다. 이로 봐서는 나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게 분명 합니다. 이제 내 차례 입니다. 답을 해야 할 차례 입니다. 등에서 나는 화차 열이 곱절로 올라 가기 시작 합니다. 가슴 답답 손발 마비 현상이 일어 납니다. 무슨 질문을 했는지 알아야 뭐라고 대답을 할 텐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핑 도는 머리로 생각 했습니다. 내가 은행에 일이 있어 왔고, 드디어 내 차례가 되어 직원 앞에 왔으니, 당연히,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손님?" 이겠지 하고 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I've bur gotto probum." (I've got a problem)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내 은행 카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내가 문제가 있다고

김치가 치즈를 만날 때™

했으니 알아 듣고, 알아서 일을 처리 해 줄 거야.'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 직원이 다시 뭐라고 말을 합니다. "@#(^&)*%\$#@!?:)|+ _&*%\$#." 알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화차 열이 점점 심해 집니다. 시원한 은행 안에서 자꾸만 땀이 흘러 내립니다. 머리가 혼잡 해지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울그락 풀그락 얼굴 색이 변합니다. 이것을 본 은행 직원이 걱정하는 얼굴로 다시 상냥히 뭐라고 말을 합니다. "?><*%*&\$#@." 이거 정말 갈수록 태산 입니다. 아무래도 내가 안절부절 하면서 시원하다 못해 चु기까지 한 은행 안에서 비지 땀을 흘리며 곤혹스러워 하니, 걱정이 되어 괜찮냐고 상냥히 물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넘겨 줘어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자신 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이 계속 상냥한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나를 빤히 쳐다 봅니다. 민망할 정도로 쳐다 봅니다. 오히려 내가 당혹스러워 안 그래도 온몸이 화차 열로 뜨겁고, 비지 땀이 나는데, 더욱 열이 올라 갑니다. 이 은행 직원이 나를 좋아해서 이렇게 빤히 쳐다 보는 건지, 아니면, 무례해서 쳐다 보는 건지, 감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카드는 이미 직원에게 주었고, 무엇을 또 달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일을 도와 드릴까요? 하고 내 답을 기다리는 것 인지. 하아 이거야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다시, 기가 막히다 못해 막막 합니다. 안절부절 하다 못해 좌절감을 느낍니다. 내가 문제가 있다고 이미 말을 했는데, 왜 알아 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나를 빤히 쳐다 보고 있을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암벽 입니다. 생각도 안됩니다. 입도 안 떨어 집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캄캄한 암벽 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생애 처음 입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아마도, 이런 상황을 두고, 맨 땅에 헤딩 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은행 직원이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머금고 뭐라고 합니다. "*&^&*%\$#@&^%":>?<&^%." 그래서 무심결에 "예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다짐이라도 하듯이 다시 뭐라고 합니다. "*&^\$%*&^%." 그래서 또 "Yes"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뭐라고

김치가 치즈를 만날 때™

합니다. “?”:}{+_]*&^%\$.” 그래서 또 “YES”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OK” 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것 저것 보고 컴퓨터에 뭔가를 치고는, 내 카드와 같이 현금을 조그만 창구로 내밀어 주면서, “Thank you.” 합니다. 우선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얼른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헛갈리고, 황당한 표정으로 직원을 물끄러미 쳐다 보면서 “어, 예, 예...” 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다시 상냥한 미소로 나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다. “&^%\$#}{@!+:.” 그래서 그냥, “예스, 탕큐.” 하고는, 좋아라 하고 얼른 창구를 떠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아, 이게 아닌데... 카드에 내 이름 영어 표기가 잘못 되어 있어 고치러 왔는데.... 하, 이거야 원... . 또 다시 와야 되나... 다시 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진 땀만 나는 게 아니라, 진짜 - 때리네 하, 휴우, 하....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져....”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는 맞는 영어 표기 이름을 적어서, 카드에 잘못 표기된 이름과 비교할 수 있게,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고, 맞는 표현에 동그라미, 잘못 된 표기에 가위 표를 해서 직원이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간단 하지만, 영어 때문에 눈이 멀어져 쉽게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